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Research Trends on Christians' Leisure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 Review of South Korean Publications Since 2000

김미혜 (Mi Hye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of Christians' Leisure since 2000,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To achieve this, a total of 37 articles were reviewed by utilizing the Inductive Content Analysi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5 analysis items such as 'the year of publication', 'research methods', 'journal distributions', 'research themes', and 'the demographics of research participants'. Results follow. First,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were published in 2004 and 2012, which was due to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week. Second, previous studies were by literature review (74.6%). Third,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were in theology studies (54.1%). Fourth, the main themes of previous studies were 'the concept and meaning of Christians' leisure(37.8%)', 'the individual Christian's leisure experiences and related research variables(18.9%)'. Fifth, previous studies were conducted only on the basis that they were Christians.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were barely included. Therefore, future research on Christians' leisure should explor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s' leisure experiences by utilizing qualitative research rather than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rough the specification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convergence with neighboring disciplines (Physical Education, Tourism Studies, Psychology, etc.).

Key words: Christian, leisure, research trend, contents analysis

* 2020년 05월 11일 접수, 08월 10일 최종수정, 08월 20일 게재확정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박사후연구원,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mihyekim0912@gmail.com.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는 2004년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으로 여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휴식, 관광,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련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1980-90년대 한국인의 삶은 근무와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며, 가족 친지를 방문하거나 외식을 하고 영화관에 가는 정도였다면(이정구, 2002), 현대 한국인의 삶은 일에서 치중된 삶에서 벗어나 가족, 건강, 관계 등에서 균형을 유지하고(Work-Life Balance), 여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다(남해경, 김영래, 2012). 이처럼 여가를 긍정하는 사회 분위기는 몸짱, 웰빙, 힐링 열풍과 함께 2010년 중반까지 이어졌다(이진형, 박종선, 2014). 이는 여가 연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가참여는 노동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단순한 휴식보다는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이 높고(김진영, 송예리아, 2012), 여가활동은 노동 생산성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박재우, 임승엽, 2014),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비참여 노동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이미영 외, 2019) 등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가연구의 양적 성장 속에서 여가연구의 긍정적 편향성, 즉 여가의 부정적인 기능은 간과되고,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남해경, 김영래, 2012; 허태균, 박정열, 2004). 이러한 연구들은 현실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가족 간의 갈등, 예상하지 않은 신체적 부상, 인간관계의 손실,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며(허태균, 박정열, 2004), 여가를 일처럼 잘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태도가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김용희, 허태균, 장훈, 2010). 또한, 여가의 외적 조건은 풍요로워졌으나, 개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육체는 더 피곤하고, 마음은 결핍을 호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도 지적하였다(김미혜, 원형중, 신규리, 2014).

이렇듯 사회 전반에 걸친 여가에 관한 열풍은 기독교인의 삶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쳤다. 박형섭(2012)의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성도들의 주일예배 출석율은 10-20% 정도 감소하였으며, 목회자의 82.2%, 평신도의 83.6%가 향후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은 주일성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오태균(2012)과 김성원(2014)의 연구에서는 주5일 수업제도의 도입으로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놀이와 가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성도들의 주말 이탈을 무조건 저지하기보다는 놀이문화와 예배의 조화에 대한 논의와 토요일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대 여가문화가 기독교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결과로, 기독교 연구에서 여가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수행된 여가연구로, 2000년 이전은 간헐적으로 발표되다가 2000년 이후 주5일 근무제 시행의 영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주5일 근무제가 한국교회에 미칠 변화를 예측하고, 교회의 새로운 문화전략을 제시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이경직, 2003; 조성돈, 2004), 안식일의 원어인 사바트(sabbath) 및 성경의 안식에 관한 예화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적 틀을 세우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강유미, 2004; 김승욱, 2005; 김옥태, 2002). 또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을 토대로 현대인의 여가 방향 및 실천방법을 제시한 연구와(김미혜 외, 2014), 최근에는 2012년 주5일 수업제의 시행으로 인한 기독교교육의 변화 방향 및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강영택, 2020; 김성원, 2014; 마상욱, 2012; 유재봉, 2019)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신학뿐만 아니라, 체육학, 관광학, 교육학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체육학자인 김미혜, 원형중, 신규리(2014)는 기독교적인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활동적 상태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상태이며 현대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사색을 위한 걷기,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필라테스 등이 일상에서 쉼을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관광학자인 손대현과 강유미(2010)는 관광 및 여가활동에서 최적각성, 무아지경, 몰입으로 표현되는 영적 체험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적 여가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다각도의 연구들로 확장되고 있다. 학문은 지식체가 축적되고 정립되어 이론이 만들어지고, 다시 연구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구상하고, 불필요한 연구의 반복을 지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서연옥 외, 2007). 하지만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어떤 학문영역에서, 어떠한 연구방법으로, 어느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되어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수행된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대상으로 동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고,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KCI 등재 및 KCI 등재 후보지에 발간된 기독교적 여가와 관련된 연구물 37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의 시기 선정 근거는 주5일제에 대한 공식발표를 시작으로 기독교적 여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과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의 웹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독교 여가’ 검색 키워드를 입력한 후 자주 출현하는 단어(예: 안식, 쉼) 및 논문들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기독교 여가에 관한 검색어를 확장하였다(정혜진, 양창훈, 201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별한 기독교에 관한 검색 키워드는 기독교, 교회, 크리스천, 신학, 안식, 쉼, 주일성수를 사용하였고, 여가에 관한 검색 키워드는 여가, 레저, 레크리에이션, 놀이, 주5일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총 62편의 자료가 1차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1차 자료 중에서 등재지와 등재후보지가 아니고 단행본, 학술대회, 포럼 및 발표자료를 제외시킨 총 44편을 2차 자료로 정리하였다. 이후 2차로 수집된 자료 중에서 논문 초록 및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로 총 37편(KCI 등재지 35편, KCI 등재 후보지 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내 기독교 여가와 관련된 주제나 주요어로 연구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연구 내용을 일정한 단위 또는 범주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 내용의 일치성(uniformity)을 찾는 자료수집 방법이다(홍은선, 정진철, 2014; Berelson, 195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둘째, 기독교적 여가 관련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셋째, 연구동향 분석을 주제로 연구된 선행연구(박선홍·이은하, 2017; 박영란·박경순, 2013; 임상도, 2013)를 기반으로 여가학 박사 2인, 여가학 교수 1인과의 협의를 통해 코딩시트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분석유목이 분류원칙에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여가학 박사 2인, 여가학 교수 1인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작업하였다. 넷째, 기독교 여가 연구물에 대한 데이터를 코딩시트에 입력하였다. 다섯째, 엑셀 2018 프로그램에 코딩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작업을 거쳐 연구결과를 표에 기술하였다. 여섯째, 최종적으로 결과를 기반으로 내용을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적 여가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분석 틀은 ‘연도별 발표빈도’, ‘연구

방법’, ‘학술지 분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 개념’으로 이러한 분석 틀은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주로 어떤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었고, 무엇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연구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현재까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의 연구방향과 과제를 파악하는데 논리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도별 발표 빈도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도별 발표 빈도를 분석한 결과, 2004년과 2012년에 7편의 연구가 발표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2004년과 2012년은 주5일 근무제도와 주5일 수업제도가 도입된 해로 발표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도 이후는 연구물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한 해 1-2편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year

Years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Total
					▶	▶	▶	▶	▶	▶	▶	▶	▶	▶	▶	▶	▶	▶	▶	▶	▶	
													▷	▷	▷	▷	▷	▷	▷	▷	▷	
n	1	0	4	1	7	5	1	1	3	0	1	0	7	1	2	0	0	1	1	1	1	37

▶ : the year of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week
 ▷ : the year of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school week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분류 틀은 선행연구(김현숙, 정희영, 2020; 성백 외, 2017)의 분류를 수정·보완하여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구분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문헌고찰, 조사자료이며, 양적연구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로 분류하였다. 질적연구는 참여관찰, 근거이론, 생애사연구, 현상학, 사례연구, 내러티브, 문화기술적연구, 심층면접으로 분류하였다. 둘 이상의 데이터 수집방법 및 분석방법의 경우에는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 methods

Research Methods	Details
Literature review	Literature review, Survey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research, Correlation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Participation observation study, Grounded theory, Life history study, Phenomenological study, Case study, The narrative approach, Ethnographic study, In-depth interview
Mixed research	More than one method of collecting data and / or more than one method of analyzing the data

연구방법의 분석결과, 문헌연구가 28편(75.7%)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양적연구 7편(18.9%), 질적연구 2편(5.4%), 혼합연구는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2000-2004)에는 모두 문헌에 의해 연구되었고, 2005년에 처음으로 조사연구가 시도되었다(박장근 외, 2005; 송홍흡 외, 2006, 양웅비, 2008a; 2008b). 질적연구는 2012년, 2020년에 한편씩 수행되었다(강영택·이종철, 2020; 서광필 외, 2012).

또한, 7편의 양적연구는 모두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로 이루어졌다. 조사연구에서 이용한 조사 변인은 여가만족(leisure satisfaction), 여가기능(leisure function),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 여가권태(leisure boredom), 여가인식(leisure awareness),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등이었다. 2편의 질적연구는 모두 생애사 연구로, 체육학 내 여가레크리에이션 연구(서광필 외, 2012)와 기독교교육 연구(강영택·이종철, 2020)에서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research methods

Years	Literature review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Total (%)
2000-2004	14	0	0	0	14 (37.8%)
2005-2009	4	4	0	0	8 (21.6%)
2010-2014	7	3	1	0	10 (27.0%)
2015-2020	3	0	1	0	4 (10.8%)
Total	28 (75.7)	7 (18.9)	2 (5.4)	0	37 (100%)

3. 학술지 분포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발행한 학술지를 중심으로 학문 분야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 신학’에서 20편(54.1%), ‘체육학’ 10편(27.0%), ‘관광학’ 3편(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 융합연구 학술지인 ‘신앙과 학문(Faith & Scholarship)’에서 4편(10.8%)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문의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독교 신학’ 내 기독교 교육에서 6편, 기독교 사회문화에서 2편, 기독교 사회윤리에서 1편, 신학 일반에서 11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체육학’ 내 여가레크리에이션에서 4편, 체육철학에서 3편, 체육 일반에서 2편, 체육교육에서 1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2000-2004)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중후반(2005-2009)은 ‘체육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대 초반(2010-2014)은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Journal distributions

Types of journals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20	Total (%)
Theology	General Christian Studies	9	1	0	1	11 (29.7%)
	Christian Education	0	0	6	0	6 (16.2%)
	Theology & Society	0	1	0	1	2 (5.4%)
	Christian Social Ethics	0	0	0	1	1 (2.7%)
Convergence	Christian & Scholarship	1	1	1	1	4 (10.8%)
Physical education	Leisure and Recreation	0	3	1	0	4 (10.8%)
	Philosophy of Movement	2	0	1	0	3 (8.1%)
	Sport Science	1	1	0	0	2 (5.4%)
	Physical Education	0	0	1	0	1 (2.7%)
Tourism		1	1	1	0	3 (8.1%)
Total		14 (37.8%)	8 (21.6%)	11 (29.7%)	4 (10.8%)	37 (100%)

4. 연구주제

연구주제의 분류 틀은 선행연구(이문진 외, 2009)의 분류방식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크게 다섯 가지 연구주제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M형(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I형(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 C형(기독교적 여가문화), W형(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 E형(여가와 현대의 기독교교

육)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연구주제별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M형 연구는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들을 분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여가의 신학적 성찰, 구약의 안식일 의미, 성경에 나타난 신체관·스포츠·여가관, 청교도와 여가, 놀이의 신학적 접근, 여가와 기독교적 가치관, 여가의 영적 개념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 I형 연구는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선별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기독교인의 여가인식과 여가경험, 기독교인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여가만족, 기독교인의 여가기능과 여가제약, 기독교인의 일과 삶의 균형, 기독교인의 쉼에 관한 생애사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C형 연구는 기독교적 여가문화에 관한 연구들을 분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여가문화에 따른 교회문화의 변화, 여가문화와 신앙생활, 신앙인의 삶에서 나타난 놀이의 가치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W형 연구는 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에 관한 연구들을 분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주5일 근무제와 목회방향,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예배의 역할, 목회와 레크리에이션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E형 연구는 여가와 현대의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분류하여 해당 주제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의 예를 들면, 주5일 수업제도에 따른 교회학교 운영방안, 주5일 수업제도에 따른 교회의 교육적 대응, 놀이신학과 교회학교, 주5일 수업제도와 교육목회제도, 기독교인 학부모들의 인식,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과 실천 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위와 같이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M형 연구가 14편(37.8%)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I형 연구가 8편(21.6%), C형 연구가 3편(8.1%), W형 연구가 6편(16.2%), E형 연구가 6편(16.2%)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research themes

Research themes		Details	Total (%)
M (meaning)	The concept and meaning of Christians' leis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theological approach to the concept of leisure • The Sabbath in the bible • The view of body, sports, and leisure in the bible • Puritans and leisure • The theological concept of play • Christian's viewpoints on leisure • The spiritual concept of leisure 	14 (37.8%)

I (Individual)	The individual Christian's leisure experiences and related research variab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ristians' leisure awareness and experiences • Church sports club members' leisure satisfaction • Leisure function and constraint • Christians' Work-Life Balance (WLB) • A history story on the rest of Christian 	8 (21.6%)
C (Culture)	Culture of Christians' leis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ges within churches' culture • Leisure culture and faith/life • The value of play in Christians' lives 	3 (8.1%)
W (Worship)	Christian's modern worship and mini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ve-day workweek and the direction of leaders • The role of worship in the Five-day workweek • Leadership and recreation 	6 (16.2%)
E (Education)	Christians' modern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ology of Play and Sunday School • The Five-day workweek and Education Ministry System • Church educational response to Five-day School week • Christian Parents' Perception of Five-day School week • Church Education Lead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6 (16.2%)
Total			37 (100%)

이러한 연구주제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Table 6과 같다. M형 연구는 2000-2004년 7편(18.9%), 2005-2009년 3편(8.1%), 2010-2014년 3편(8.1%), 2015-2020년 1편(2.7%)이 발표되었다. I형 연구는 2000-2004년에는 발표되지 않았고, 2005-2009년 3편(10.8%), 2010-2014년 2편(5.4%), 2015-2020년 2편(5.4%)이 발표되었다. C형 연구는 2000-2004년 2편(5.4%), 2005-2009년 1편(2.7%)이 발표되었다. W형 연구는 2000-2004년 5편(13.5%), 2015-2020년 1편(2.7%)이 발표되었다. E형 연구는 2010-2015년 6편(16.2%)이 발표되었다.

Table 6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hemes by year

Research themes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20	Total (%)
M (meaning)	The concept and meaning of Christians' leisure	7 (18.9)	3 (8.1)	3 (8.1)	1 (2.7)	14 (37.8%)

I (Individual)	The individual Christians' leisure experiences and related research variables	0 (0.0)	4 (10.8)	2 (5.4)	2 (5.4)	8 (21.6%)
C (Culture)	Culture of Christians' leisure	2 (5.4)	1 (2.7)	0 (0.0)	0 (0.0)	3 (8.1%)
W (Worship)	Christian's modern worship and ministry	5 (13.5)	0 (0.0)	0 (0.0)	1 (2.7)	6 (16.2%)
E (Education)	Christians' modern education	0 (0.0)	0 (0.0)	6 (16.2%)	0 (0.0)	6 (16.2%)
Total		14 (37.8%)	8 (21.6%)	11 (29.7)	4 (10.8)	37 (100%)

5.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문헌연구를 제외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수행된 9편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독교인에 관한 연구 1편, 교회 내 스포츠활동 참여자에 관한 연구 3편, 학부모에 관한 연구 1편, 기독교대학생에 관한 연구 1편, 기독교청소년에 관한 연구 1편, 교회교육 지도자에 관한 연구 1편, 목회자에 관한 연구 1편 등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demographics of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participants	The lists of previous studies
Christians	The Research of Deviant Behavior of Leisure Awareness and Leisure Experiences through Christians' General Specific Character (Park et al., 2005)
Sports participants in Christian churches	The Influence of Church Sports Clubs o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Level with Church Activities (Song et al.,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Christian' Participation in Church Sports Activities Pastoral' Valu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Service, Leisure and life (Yang, 2008a)
	The Influence upon Christian' Participation in Church Sports Activit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Service, Leisure (Yang, 2008b)
Christian parents	A Study on Christian Parents Perception of Five-day School Week System (Oh, 2012)
Christian college students	The Effects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f Elective Physical Education Lecture Participation on Leisure Function, Constraint, and Boredom (Kim, Lee, 2013)
Christian youth	A Life History Study on the Rest that the Christian Youth Experiences (Kang, 2020)
Church education leaders	Church Education Lead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Five-day School Week System and Saturday Church Program (Kim, 2014)
Pastors	Exploring Relationship Between Ministry and Recreation: Life History Perspective (Kim et al., 2012)

6. 연구 개념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 연구된 개념을 조사하였으며, 논문에서 두 개 이상의 개념을 연구한 경우, 중복으로 인정하여 집계하였다. 분석결과, 총 18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안식(sabbath, 15.8%), 다음은 문화(culture, 12.3%), 역사(history, 10.5%), 교회서비스(church service, 8.8%), 교회교육(church education, 8.8%), 여가만족(leisure satisfaction, 7.0%), 여가스포츠(leisure sports, 7.0%)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여가경험(leisure experience), 놀이(play), 영성(spirituality), 지도력(leadership)에 관한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8과 같다.

Table 8 Christian leisure-related research trends by Key constructs

	Key constructs	Total (%)
1	Sabbath	9 (15.8%)
2	Culture	7 (12.3%)
3	History	6 (10.5%)
4	Church Service (e.g. Ministry, Worship)	5 (8.8%)
5	Church education	5 (8.8%)
6	Leisure satisfaction	4 (7.0%)
7	Leisure sports	4 (7.0%)
8	Leisure experience	3 (5.3%)
9	Play	3 (5.3%)
10	Spirituality	2 (3.5%)
11	Leadership (e.g. Pastor)	2 (3.5%)
12	Leisure function	1 (1.8%)
13	Leisure constraint	1 (1.8%)
14	Leisure boredom	1 (1.8%)
15	Life satisfaction	1 (1.8%)
16	Work-Life Balance	1 (1.8%)
17	Health	1 (1.8%)
18	Leisure awareness	1 (1.8%)
	Total	57 (100%)

IV. 논의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14편, 37.8%). 이는 주5일 근무제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된 2004년이 포함된 시기로, 새로운 근무제도가 향후 기독교인의 주일성수 및 여가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경직, 2003; 이정구, 2002; 조성돈, 2004). 그리고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은 다시 한번 증가하는데(11편, 29.7%), 이는 2012년 이후 토요일휴업일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독교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4편의 연구만이 발표되는 등 연구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의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발표량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 후반으로 갈수록 사회적 이슈가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연구물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사회적 이슈에 의한 연구물의 증감을 보이는 현상은 기존 여가학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문으로서 여가학(Leisure Studies)은 1980년대 국내 도입되어 체육학, 관광학, 사회학, 심리학, 가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다(노용구, 이철원, 2003). 비단 학문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책의 영역에서도 여가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등의 영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가 정책사업에 포함된다고 간주되어 여가정책을 명시한 부서나 시책은 없는 실정이다(윤소영, 유지윤, 이강욱, 김향자, 노용구, 2007). 이러한 점에서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한 여가학의 특성상, 사회적 이슈에 의해 학자들의 관심이 반응하는 한계를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학문이 태동하는 초반에 나타나는 한계로서,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메시지는 있지만,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학자들 간에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주제들이 다양성을 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연구의 정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각 학문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채널인 학술교류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학술교류를 정례화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공론화하고,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가 구체화 될 때 다양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 학자들에 의해 학문의 분화와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의 분석 결과,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문헌 연구(28편, 75.7%)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독교적 여가 개념과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경, 역사서, 선행연구 등을 고찰한 연구들이 많았던 것을 이유로 볼 수 있다(강유미, 2004; 김옥태, 2004; 손대현, 강유미, 2010). 다만, 20년 동안 발표된 질적 연구가 2편에 불과한 것은 향후 연구에서 반드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이론을 구축하고, 양적 연구를 통해 이론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등 학문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귀납적인, 즉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신경림 외, 2004). 따라서 앞으로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현상학 등을 활용하여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러한 현장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독교인들의 여가 참여 구조, 원인, 맥락, 차원, 결과 등 구조화를 시도하면서 이론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적 여가연구의 활성화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여가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재로써 여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노용구, 이철원, 2003).

셋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신학자들 외에 다른 학문 중에서도 체육학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옥태, 2004; 김미혜 외, 2014; 함정혜, 2000). 체육학은 실천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문으로, 몸에 관한 인식론적 탐구를 활발히 수행하면서도 체육인의 주관적 체험을 중시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적인 연구방법론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학문이다(송형석, 2015). 이러한 점에서 체육이라는 학문과의 융합은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의 영적, 심리적, 신체적 만족감을 그들의 일상적 언어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향후 체육학뿐만 아니라 관광학, 교육학, 심리학 등 대상의 주관적인 체험과 의미를 강조하는 학문들과의 융합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여가체험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동향분석 결과 신학자들은 ‘여가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에 대해 이론과 개념을 정립하는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학계는 기독교적 여가에 관한 개념 정립을 주도하고, 체육학, 관광학, 교육학 등 다른 학계에서는 개별 학문이 가진 전문성을 중심으로 여가현상을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증거함으로써 실천적인 기독교 여가학문으로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구 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기독교 여가문화’,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 요인’, 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 ‘여가와 현대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2000년부터 2004년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아기로,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여가문화에 관한 논의와 기독교적 여가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들이 처음 시도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은 기

독교적 여가개념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는 동시에, 체육학자, 경제학자, 관광학자 등 타 학문의 학자들의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이 발표되면서 학제 간 융합연구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은 토요일휴업일의 도입과 함께 토요일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면서 기독교적 여가의 실천영역으로서 여가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 2020년은 직전 시기의 영향을 이어받아 교육을 주제로 한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기독교청소년들의 쉼에 관한 질적 연구(강영택, 2020), 놀이로 세우는 공동체에 관한 연구(윤영훈, 2018), 쉼의 어원(schola)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의미 재해석 연구(유재봉, 2019) 등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2010-2014년에 수행된 연구들은 토요일휴업일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집중했던 반면에, 2015-2020년에 수행된 연구들은 여가의 교육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볼 때,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이론의 영역을 넘어 실천의 영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연구 주제의 폭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심화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정체성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연구대상보다는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 용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의 여가인식, 목회자의 여가 등 대상 중심의 여가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가령, 기존 여가학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생애주기, 직업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있다(예: 1인 가구, 80대, 여성노인). 또한 대상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연구에 최대한 반영하는 작업을 여가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강조하였다(홍서연, 김미량, 2017). 이러한 점에서 향후 기독교 여가연구에서도 대상을 포괄적으로 범주화하기보다는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로 기독교청년의 여가 연구보다는 졸업예정자인 기독교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여가, 신앙에 관한 연구로 연구대상을 구체화 시킬 때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대상인 독거노인,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주민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여가학에서는 주류 사회학의 기능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직업의 유무를 중심으로 노동자, 은퇴자, 맞벌이 부부 등 여가의 효용 가치를 보여주기 용이한 대상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남해경, 김영래, 2012).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관한 여가연구를 활발히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소외된 삶에서도 영성을

통해 내적 성숙을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의 삶과 여가에 관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여가의 효용성보다는 실존에 관한 여가연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안식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역사, 교회서비스(목회, 예배), 교회교육, 여가만족, 여가스포츠, 여가경험, 놀이, 영성, 여가계약, 여가권태,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여가인식 등의 순으로 연구되었다. 먼저 안식(Sabbath)이 가장 많이 연구된 이유는 성경에서 언급되는 안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화(Culture)가 많이 사용된 이유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새로운 교회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History)의 경우 여가를 역사적 맥락(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 현대)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이상적인 여가의 의미와 예배의 역할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기독교적 여가연구가 안식, 문화, 역사, 예배, 교육 등 신학적 개념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독창성과 참신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여가학에서 자주 연구되는 여가만족, 여가스포츠, 여가계약, 일과 삶의 균형, 여가인식(황선환, 조희태, 2015) 등에 관한 연구들도 시도된 것은 기존 여가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기독교적 여가연구 37편을 중심으로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표빈도는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 도입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구물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독립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한 여가학의 특성상, 사회적 이슈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반응하는 학문상의 한계이자, 초기융합연구의 한계로 사료된다.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여가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학계의 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학술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학자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이 80%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헌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된 것을 볼 수 있다.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질적연구를 기반으로 귀납적인, 즉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이론을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여가학 이론을 차용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의 현장연구를 기반으로 이론을 선 구축하여 양적 연구를 검증하는 연구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질적연구 방법의 활성화는 현장에서 제기된 기독교인의 여가 문제를 발굴하고, 신앙인으로서 여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특징적으로 신학 외에 체육학에서 많이 연구되었다. 체육학은 융합학문으로서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좋은 예시가 되었으며,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품고 여가를 실천하는 연구 참여자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기독교적 여가의 실천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광학, 교육학, 심리학 등 현장성이 강한 다양한 학문들과의 융합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여가현상을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증명함으로써 실천적인 학문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연구주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연구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 ‘기독교 여가문화’, ‘여가와 현대의 목회방향’, ‘여가와 현대의 기독교 교육’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2000년부터 2004년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발아기로, 기독교적 여가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들이 처음 시도되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은 체육학, 경제학, 관광학 등 타 학문 학자들의 기독교적 여가연구들이 발표되면서 학제 간 융합연구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은 토요휴업일의 도입과 함께 기독교적 여가의 실천영역으로서 여가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 2020년은 기독교적 여가의 교육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 연구주제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이론의 영역을 넘어 실천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연구 주제의 폭도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연구 주제 이외의 참신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2005년을 기점으로 대상 중심의 여가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관한 여가연구를 활발히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안식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역사, 교회서비스, 교회교육, 여가만족, 여가스포츠, 여가경험, 놀이, 영성, 여가예약, 여가권태,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여가인식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식, 문화, 역사, 예배, 교육 등 신학적 개념들이 우선

순위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독창성과 참신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존 여가학에서 자주 연구되는 여가만족, 여가제약, 여가인식 등 사회심리학적 변수들도 시도된 점을 볼 때 기존 여가학과의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여 기독교적 여가연구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여가의 본질적 의미와 개념을 정립하고, 그리스도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그러나 초기 융합연구의 한계로서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으며, 대상 중심의 질적 연구로 확장해나가지 못하고 개념에 관한 연구들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연구의 정체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연구 간의 통합과 분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근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학문의 실천적 증거를 뒷받침하고, 여가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고, 소외된 계층에 관한 여가연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언을 기반으로 후속연구들의 활발한 수행을 통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연구의 확장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Barskova, T., & Oesterreich, R. (2009). Post-traumatic growth in people living with a serious medical condition and its relations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1(21), 1709-1733.
-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 Boals, A., & Schuler, K. L. (2018). Reducing reports of illusory posttraumatic growth: A revised version of the Stress-Related Growth Scale (SRGS-R).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0(2), 190-198.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강영택·이종철 (2020). 기독교소년들이 경험한 쉽에 대한 생애사 연구. **신학과 사회**, 34(1), 229-264.
- [Kang, Y. T. and Lee, J. C. (2020). A Life History Study on the Rest that the Christian Youth Experiences. *Theology and Society*, 34(1), 229-264.]
- 강유미 (2004). 레저의 종교적 이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관광연구논총**, 16, 81-98.
- [Kang, Y. M. (2004). The Religious Approach to the Concept of Leisure : In Christian perspective. *Journal of Tourism Studies*, 16, 81-98.]
- 김미혜·원형중·신규리 (2014). 현대여가에서의 쉽의 의미와 방향 탐색. **한국체육철학회지**, 22(1), 155-171.
- [Kim, M. H., Won, H. J. & Shin, K. L. (2014). A Search for Meaning and Direction of Resting in Contemporary Leisure Stud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22(1), 155-171.]
- 김성원 (2014).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에 관한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과 실천. **기독교교육정보**, 40, 245-269.
- [Kim, S. W. (2004). Church Education Lead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Five-day School Week System and Saturday Church Program.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0, 245-269.]
- 김승욱 (2005). 여가관의 역사적 변천과 개혁주의 여가관. **신앙과 학문**, 10(2), 51-89.
- [Kim, S. W. (2005). Changes in the Perspectives on Leisure and Reformed Viewpoint on

Leisure. *Faith & Scholarship*, 10(2), 51-89.]

김옥태 (2002). 청교도의 여가에 대한 공과. **한국체육철학회지**, 12(1), 1-23.

[Kim, O. T. (2002). Merits and Demerits of the Puritans on Leisure. *Philosophy of Movement*, 12(1), 1-23.]

김용희·허태균·장훈 (2010). 여가 강박 개념화 연구. **여가학연구**, 8(21), 59-82.

[Kim, Y. H., Hur, T. K. & J, H. (2010). The Conceptualization of Leisure-Obsession. *Journal of leisure studies*, 8(21), 59-82.]

김정모·이충영 (2013). 기독교대학생들의 교양체육 수업참가 만족도가 여가기능, 여가제약, 여가권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3), 173-191.

[Kim, J. M. and Lee, C. Y. (2013). The Effects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f Elective Physical Education Lecture Participation on Leisure Function, Constraint, and Boredom.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8(3), 173-191.]

김진영·송예리아 (2012). 여가활동의 질과 건강의 관계: 고용 및 소득과의 상호작용 효과. **보건과 사회과학**, 32, 115-144.

[Kim, J. Y. and Song, Y. A.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ies of Leisure Activities and Health: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Employment or Income.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32, 115-144.]

김현숙·정희영 (2020).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분석. **신앙과 학문**, 25(1), 5-35.

[Kim, H. S. and Jeoung, H. Y. (2020). Analysis on Homeschooling Research Trends in Korea. *Faith & Scholarship*, 25(1), 5-35.]

남해경·김영래 (2012). **여가와 풍요의 역설**. 한울: 서울

[Nam, H. K. and Kim, Y. R. (2012). *Paradox of leisure society*, Hanul: Seoul.]

노용구·이철원 (2003). **여가학 연구방법론**. 대경북스: 서울

[Noh, Y. G. and Lee, C. W. (2003). *Research Methodology in Leisure Studies*, Daekyung books: Seoul.]

마상욱 (2012). 주5일 수업제도에 따른 교회 토요일학교 방안연구. **기독교교육정보**, 34, 87-111.

[Ma, S. W. (2012). A Study on Saturday Church School under a Five-day Workweek.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4, 87-111.]

박선홍·이은하 (2017). 탈북민 대상 기독교상담 연구 동향. **사회복지경영연구**, 4(1), 1-19.

[Park, S. H. and Lee, E. H. (2017). The Trend of Research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 in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4(1), 1-19.]

박영란·박경순 (2013).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60, 323-352.

[Park, Y. R. and Park, K. S. (2013). Social Support Network and Welfare of the Elderly in Korea: Research Trends and Future Task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0, 323-352.]

박장근·임란희·최덕목 (2005). 기독교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탈적 여가의식 및 여가경험 조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4, 539-552.

[Park, J. G., Lim, R. H. & Choi, D. M. (2013). The Research of Deviant Behavior of Leisure Awareness and Leisure Experiences through Christians' General Specific Character.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4, 539-552.]

박재우·임승엽 (2014). 창조경제와 여가산업 정책: 사회적 가치 전환 시대의 논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3), 126-140.

[Park, J. W. and Im, S. Y. (2014). Creative economy and leisure industry policy: Rationals in the social value-changing era.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38(3), 126-140.]

박형섭 (2012). 주 5일 근무제와 유연근무제 시대 올바른 주일성수와 주일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고찰과 대안. **조직신학연구**, 16, 232-245.

[Park, H. S. (2012). A study on understanding and alternative of the practical theology for the five-day workweek and flexible working era for the lord's day and sunday worship. *Systematic Theology Division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16, 232-245.]

서광필·이철원·김민정 (2012). 목회와 레크리에이션의 관계 분석: 생애사적 관점.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6(2), 66-76.

[Suh, K. P., Lee, C. W. & Kim, M. J. (2012). Exploring relationship Between Ministry and Recreation: Life history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6(2), 66-76.]

서연옥·박정숙·양진향·김혜원·석민현·신현숙·장희정·정면숙·정명실 (2007). 최근 3년간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동향. **한국간호과학회**, 37(6), 1013-1019.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H., Shin, H. S., Jang, H. J., Jung, M. S. & Chung, M. S. (2012).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1013-1019.]

성백·박형서·공기인·안창진·서유림 (2017).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통일교육연구의 동향분석. **기독교교육정보**, 55, 97-119.

[Sung, B., Park, H. S., Ghong, K. I., Ahn, C. J. & Seo, Y. R. (2012). Analysis on Research of Korea” Unification Education in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5, 97-119.]

송홍석 (2015). 체육철학의 연구동향: 체육철학회지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6(1), 1-14.

[Song, H. S. (2015). Research Trends of Sport Philosophy: Focused on the Philosophical Articles in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6(1), 1-14.]

송홍흡·김장환·이성노·고승철 (2006). 교회 스포츠동호회 활동이 교회활동 참여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6, 437-449.

[Song, H. H., Kim, J. H., Lee, S. N. & Go, S. C. (2006). The Influence of Church Sports Clubs on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Level with Church Activiti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6, 437-449.]

양웅비 (2008a). 기독교인의 교회내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스포츠의 목회적 가치와 교회만족, 여가만족,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7(3), 87-99.

[Yang, W. B. (2008b). The relationships among Christian’ participation in church sports activities pastoral’ valu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service, Leisure and Lif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7(3), 87-99.]

양웅비 (2008b). 교회내 스포츠활동 참여가 교회만족과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1), 119-131.

[Yang, W. B. (2008b). The Influence upon Christian’ participation in church sports activit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hurch service. Leisure.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2(1), 119-131.]

오태균 (2012).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주말 여가생활 현황 및 교회교육 인식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34, 1-36.

[Oh, T. K. (2012). A Study on Christian Parents Perception of Five-day School Week System. Leisure.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4, 1-36.]

유재봉 (2019). 쉼과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재해석. **신앙과 학문**, 24(3), 139-161.

[Yoo, J. B. (2019). Education for Leisure and Excellence: An Educational Reinterpretation. *Faith & Scholarship*, 24(3), 139-161.]

윤소영·유지윤·이강욱·김향자·노용구 (2007). 여가정책의 영역 및 향후과제에 대한 제안 연구. **여가**

학연구, 5(2), 72-87.

[Yoon, S. Y., Yu, J. Y., Lee, K. W., Kim, H. J. & Noh, Y. K. (2007). The Area of Leisure Policy and A Policy Direction in the Leisure Sectors. *Journal of Leisure Studies*, 5(2), 72-87.]

윤영훈 (2018). 놀이로 세우는 공동체-문화시대 신학과 목회를 위한 놀이의 재발견. **신학과 선교**, 54, 193-232.

[Yoon, Y. H. (2018). A Study of Play for Christian Theology and Ministry in the Age of Culture. *Theology and Mission*, 54, 193-232.]

이경직 (2003). 한국교회와 주5일 근무제. **신앙과 학문**, 8(2), 103-130.

[Lee, K. J. (2003). Korea Church and Five Days' Work. *Faith & Scholarship*. 8(2), 103-130.]

이미영·이홍직·안수경·윤수인·최순례·윤승태 (2019). 임금노동자의 일과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9(4), 63-96.

[Lee, M. Y., Lee, H. J., An, S. G., Yoon, S. I., Choi, S. R. & Yoon, S. T. (2019). The Effects of Wage Workers' Work and Leisure on Happines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9(4), 63-96.]

이정구 (2001). 새로운 교회문화 형성을 위한 대안. **한신대학교 신학사상 연구소**, 118, 61-84.

이진형·박종선 (2014). 힐링열풍과 관광개발: 개념,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례. **동북아관광연구**, 10(1), 1-17.

[Lee, J. H. and Park, J. S. (2014). Healing Fever and Tourism Development in Korea: Concepts, Socio Cultural Background and Cases.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10(1), 1-17.]

이병찬 (2016).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일과 삶의 균형(WLB)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5(5), 549-557.

[Lee, B. C. (2016).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Work Life Balance and a Sense of Happiness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5(5), 549-557.]

이보미 (2015). 달리기에 참여한 동기, 자기효능감, 진지한 여가와 심리적 몰입과의 관계 탐색. **관광학 연구**, 39(7), 53-69.

[Lee, B. M. (2015). Relationship of Participation Motivation in Running, Self-Efficacy, Serious Leisure and Psychological Commitment. *Korea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9(7), 53-69.]

임상도 (2013). 유아교육철학의 연구동향 분석: 전문학술지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4(2), 169-

190.

[Lim, S. D. (2013).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Philosoph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Case of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4(2), 169-190.]

이문진·이연주·김재운 (2009). 가족여가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5-13.

[Lee, M. J., Lee, Y. J. & Kim, C. W. (2009). The Study Tendency and Future Research of Family Leisure.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3(2), 5-13.]

정혜진·양창훈 (2018).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의 리질리언스 연구 동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지**, 28(3), 49-74.

[Jung, H. J. and Yang, C. H. (2018). Research Trend of Resilience Studi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Using Keywords Network Analysi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67, 49-74.]

조성돈 (2004). 주 5일 근무제와 개혁신앙: 여가화를 통한 사회적 변동과 삶의 목회. **한국개혁신학**, 16, 85-106.

허태균·박정열 (2004). 실패한 여가의 심리학적 의미: 무슨 여가를 왜 실패하는가?. **여가학연구**, 2(1), 69-85.

[Hur, T. K. and Park, C. Y. (2004). Psychological analysis of leisure failures. *Journal of Leisure Studies*, 2(1), 69-85.]

홍서연·김미량 (2017). 여성의 여가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2005년 이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7, 333-343.

[Hong, S. Y. and Kim, M. R. (2017).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Women`s Leisure : Focused on Articles Published in Korea since 2005.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67, 333-343.]

홍은선·정진철 (2014). 경력정체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비교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6(1), 103-129.

[Hong, E. S. and Jeong, J. C.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s between Korean and the Other Countries Researches Related to Career Plateau.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6(1), 103-129.]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Research Trends on Christians' Leisure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 A Review of South Korean Publications Since 2000

김미혜 (한국스포츠평정책과학원)

논문초록

이 연구는 지난 20년(2000-2020)간 이루어진 국내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기독교적 여가연구 37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구물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둘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문헌연구 75.7%, 양적연구 18.9%, 질적연구 5.4% 비중으로 수행되었다. 셋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기독교신학 외에 체육학, 관광학에서 많이 시도되었다. 넷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다섯 가지의 연구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기독교적 여가의 개념과 의미’, ‘기독교인의 여가체험 및 관련요인’, ‘기독교 여가문화’, ‘여가와 현대의 목회 방향’, ‘여가와 현대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기독교적 여가연구는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는 일반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여섯째, 기독교적 여가연구에서 많이 연구된 개념은 안식(sabbath, 15.8%), 문화(culture, 12.3%), 역사(history, 10.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기독교적 여가연구자들은 기독교적 여가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론화함으로써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현장성 있는 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고 인접 학문(체육학, 관광학, 교육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지식체계의 확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 여가, 연구동향, 내용분석.